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14> '살아 있는 말' 을 참구할 것

참선하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不變)과 인연 따라 나타나는 수연(隨緣)의 뜻이다. 단숨에 깨치는 돈오(頓悟)와 차츰차츰 나아가는 점수(漸修)의 내용을 잘 알아야만 한다. 그런 뒤에 말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되는 교(敎)를 벗어나 말을 볼 수 있게 선(禪)의 근본 뜻을 참구해야 한다. 그리고 오로지 한 생각으로 화두만을 참구해야 한다.

화두를 쟁길 때 신심(信心)과 분심(憤心)과 의심(疑心)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살아 있는 말' 을 참구하는 것이자 생사의 몸을 벗어날 수 있는 살길이다. 이 내용을 <선가귀감>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大抵學者 須參活句 莫參死句**  
 도를 닦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살아 있는 말' 을 참구할 일이고 '죽어 있는 말' 을 참구하지 말지어다.

'살아 있는 말' 과 '죽어 있는 말'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선종(禪宗)에서는 공부 길을 터줄 수 있는 아주 쓸모있는 말들을 '살아 있는 말'이라 하고, 쓸모없는 말들을 '죽어 있는 말'이라 한다. 선문(禪門)에서 쓰이는 '살아 있는 말' 들은 중생들이 사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 부처님 세상을 하나가 될 수 있는 지혜를 말한다.

모든 번뇌를 끊고 타파할 수 있어 삼공이 번뜩이는 지혜를 '살아 있는 말'이라 하고, 이리저리 뜻을 헤아리고 추측하여 쓸데없이 번뇌만 더 늘게 분별하는 지혜를 '죽어 있는 말'이라 한다.

'살아 있는 말'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

행자의 마음을 터 줄 수 있는 번뜩이는 지혜이므로 생명을 살리는 칼로 비유되어 '활인검(活人劍)'이라고도 하고, '죽어 있는 말'은 공부 길을 방해하여 수행자의 생명인 지혜를 없애기 때문에 '살인도(殺人刀)'라 한다. 참구하는 화두는 화두 자체에서 모든 사비 분별이 끊어져야 '살아 있는 말'이 된다. <산방야화(山房夜話)>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語中有語 名爲死句 語中無語 名爲活句**  
 말 가운데 말이 있는 것을 '죽어 있는 말'이라 하고 말 가운데 말이 없는 것을

## 부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지혜 선지식에 지도받는 것이 중요

'살아 있는 말'이라 한다.

선종에서 참구한 수행자가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불법에 대한 가르침을 은뎀으로 제득하려는 행위를 뜻한다. 선가에서는 어떤 경계에 집착하는 일음(一音)을 모두 배척하고 몸소 눈 밝은 스승을 찾아 그 분의 가르침 속에서 참선하는 것을 수행자들이 실천해야 할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여긴다.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스승 밑에서 참선하고 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선종에서는 선지식을 찾아볼지 않아 공부에 잘못되는 것을 큰 병통으로 친다.

그러므로 선종에서는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일이며, 늘 '선지식을 찾아보라'는 것이 큰 가르침이 된다. 선지식을 찾아 화두를 받고 그 스승 밑에서 '살아 있는 말' 을 참구하는 것이 아

주 중요하다.

<백암록>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잠심(參尋), 참문(參問), 참교(參叩), 참현(參玄), 참학(參學), 참상(參詳) 같은 말들도 모두 참구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서산 스님은 '살아 있는 말'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과 어깨를 견주면서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것이고, 죽은 말에서 깨달고 착각하면 이것은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는 일이 될 것이다'며 계속으로 말한다.

**要見臨濟 須是鐵漢**  
 임제 스님을 만나려면 쇠덩어리로 눈이 되어야 한다.

서산 스님은 다시 말한다. "화두를 참구하는 데에는 '말을 참구하는 것'과 '그 뜻을 연구하는 것'이 있다. 말을 참구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지름길'이자 '살아 있는 말' 즉 활구(活句)이니, 생각할 수도 없고 설명할 길이 없으므로 여기에 이르러서는 달리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 뜻을 연구한다는 것은 화두를 '이리저리 헤아리고 추측하여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것'이자 '죽어 있는 말' 즉 사구(死句)이니, 이처럼 따질 수도 있고 말로 설명할 길도 있어서 어떤 대승경계로써 들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이라는 어떤 경계가 내 안에 펼쳐지고 있다면 '나'라고 하는 몸이 아직까지 사비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이니 공부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화두 공부의 완성이란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어 화두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져 모든 것이 텅 빈 자리로 오로지 밝은 지혜만 남아 있는 것이다.

텅 빈 마음에서 나오는 빛나는 지혜를 '공적영지'라 하기도 하고 '진공묘유'라 하기도 한다. 텅 비어 고요하다는 공적(空寂)이나 진공(真空), 신령스러운 맑아져 부처님의 지혜로 눈앞에 펼쳐지는 영지(靈知)나 묘유(妙有)는 알고 보면 같은 뜻이기 때문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 공양

군대 졸업 시절 군중병이었던 저는 막 식사를 마친 내무실 고참에게 "공양하셨습니까?"하고 인사했다가, 기특교도였던 그 고참에게 꾸지람만 받았지. "뭘 입마! 너 참 개님 없다. 공양 했나? 그 말이 무슨 말인데?" 덕분에 그날 저녁, 당연히 내무반 집합이 결렸지요. '공양'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접에서 먹는 하루 세 끼 식사를

의미합니다. 물론 부처님께 올리는 음식물이나 향(香), 등불, 차(茶), 꽃 등도 '공양을 올린다'고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술한 경전이나 좋은 불교서적을 무상으로 나누어 줄 적에도 '법공양(法供養)'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양, 즉 '공급공양(供給奉養: 공급해서 봉양한다)'의 말 속에는 음식을 올리는 것 이외에도 '뜻을 받들어 모신다'는 '존경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지요. 공양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입니다. 스님들은 깨달음을 얻으면 육체를 잘 관리해야 하죠. 그래서 공양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득이 받는 것이고, 깨달음 이후에는 가르침을 베풀어 보답해야 합니다. 또 신도들은 복덕을 쌓아 진리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 공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철우 기자

###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89)

##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 2부 35강 보살의 토대 없는 보시의 복덕

- "응무소주 행어보시(應無所住, 行於布施): 이 말은 "보시를 행한다"가 아니라 "보시에서 행한다"는 뜻이 된다. 구마라습이 이렇게 문장을 부자연스럽게 고친 이유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보살의 보시가 '목적과 대상을 의식하지 않는 순수 행동'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닐까.

**토대 없는 보시**  
 - "색성향미촉법의 토대 없는 보시(所謂不住色布施, 不生聲香味觸法布施):" 형체, 소리, 냄새, 맛, 촉각, 그리고 의식은 한 인격이 토대를 구성하는 자료들이다. 이들 여섯 대상이 자극을 주면, 신체는 이 자극을 향해 감정적·의지적으로 반응한다. 이것이 반복되고 패턴화 되면서 견해(見解)라 부르는 편견(?)이 형성된다. 성격, 혹은 인격은 이 과정을 통한 강화의 결과이다. 다시, 성격은 의계에 대한 자극을 선택하고, 거기 반응하는 양상을 결정한다. 각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지각에 대한 '마음'의 호오(好惡), 증애(愛憎), 취사(取捨)로 나타난다. 이 반응은 생명의 유지에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자양이지만, 그러나, 이 활동이 '너무 멀리 나감으로써', 그 무질제와 방만이 문제를 일으킨다. 예를 들면, 형태와 소리는 마음의 고요와 안정을 다치고, 사무의 공정성을 잃기 쉽다. 그 형태와 소리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일 때는 더 없이 위태롭다. 고통과 스트레스, 그리고 업의 대부분은 '사람과 더불어' 생기는 것이기에...

정지인들을 보라. 안타까운 것이 어디 한 둘 이랴만, 그 중 큰 것이 사적 감정과 원한에 너무 집착한다는 점이다. 자신과는 당을 달리하는 '꼴(色)' 보기 싫은 사람이라고 해서, 한때 그를 비난하는 '소리(聲)'를 내고 해서,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친한 '연(緣)'이 없다고 해서, 상대방을 '손보는 데' 정력을 쏟고 자기편을 감싸느라 급급하다.

참, 여섯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법(法)에 대해서 짚어두어야겠다. 법은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데, 가령, '진리', '가르침', '세상의 참모습' 등이고, 이들 의미는 서로 얽혀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법은 마음(心)이라는 '감각기관(?)과 짝해 있는 심리적 상

관(觀). 쉽게 말하자면, 마음속에 오기는 온갖 상념들을 가리킨다. 불교는 이들의 유용한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에 더 유의한다. 그래서 <금강경>은 이들 '마음의 원순(心猿)'들을 제어하고 행복받는데 큰 힘을 들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공(空)의 축복**  
 마음을 행복받을 때, 우리는 실제로 만나기 시작한다. 그것들은 습성화된 자동화된 반응, 세속화된 관심 속에서는 망각 속에서

없다  
 - 그 '보살의 토대 없는 보시 복덕은 이 우주공간처럼 측량할 수 없다(菩薩無住相布施福德, 亦復如是, 不可思量):' 남에게 무엇을 주고 배울 때, 위신이나 동정심, 그리고 돌아올 보살 등등의 '토대'를 가지면, 그 공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받는 사람도 우선 고마워는 하겠지만, 그다지 감동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모욕감을 느끼고 호의를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받기보다 주기가 어렵다! 나는 가

것을 자랑하는 인사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현실적으로 자기만족의 흔적 없이, 또 돌아올 보살의 기대 없이 베풀기는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은 '위대한 실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룩한 공적은 양으로 계산할 수 없다. 그것은 그야말로 질적 전회(轉回)기에, 우주를 뒤바꾸어 놓는다.  
 가령, 바쁜 걸음을 멈추고, 남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일, 그런 친절은 아무런 물질적 보상이 없어도, 그 사람의 수고를 덜어준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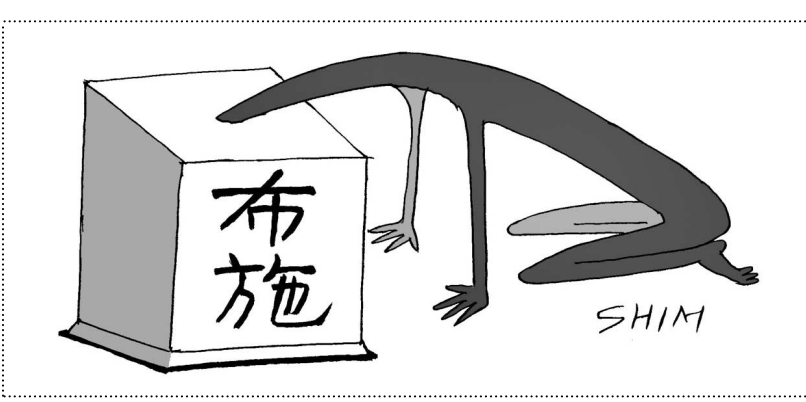
어렵다. 우리는 무시이래로 아상(我相)을 축으로 세계를 읽고, 사람들 대하며, 일을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이 근본적 무지와 환상을 반성하고, 그 힘을 역전시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해 나가자고 마음먹기는 정말 어렵다. 이것이 발심(發心), 즉 '보리심을 발하기'이다.

**초발심, 삶의 물길을 바꾸다**  
 이 자신 속의 잠재력을 격발시키자면 때로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 삶의 루틴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남다른 고통을 겪거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거나, 혹은 직접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런 전환의 기회가 더 많다. 원효도 "생사(生死)를 한번 겪어보아야" 불도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한다.

무한정 있을 것 같았던 시간이 실은 없다는 것의 자각이 우리가 안전하게 여겼던 삶의 토대를 일거에 무너뜨린다. 그때 그는 거기 새로운 토대를, 토대 아닌 토대를 건설해야 할 실존적 필요에 직면한다.  
 그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삶이 참나이고, 대문 밖이 저승임을 몸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미 이전의 그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껍질을 벗고 남을 향해 의미의 시선을 던지게 된다. 여기서 초발심(初發心)이다!

초발심이 산다면, 이미 위대한 깨달음의 절반은 이루어진 셈이다. <금강경> 제 9장 일상무상분(一相無相分)에는 아라한(阿羅漢)의 네 가지 계위가 나온다. 처음이 수다원으로 입류(入流), 즉 "흐름에 들어왔다"의 경지이다. 삶의 물길이 바뀌면, 이미 일은 거지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마음 하나" 바꾸면 삼계가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한다. 여래들이 둘러싸서 축복하고, 일체의 인연사라가 그를 뿔뿔히 공양을 올린다. ■한국학중앙연구원

## 허공을 재는 두레박



급적 누가 무엇을 준다 하면, 긴장한다. 아니 반도 될 양이면, 정중하게 사양하고, 그게 지나친 결벽으로 오해되겠다 싶으면 받는다. 조금 주고 많이 기대하는 것이 인 지상정이라 주고받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 연연(戀戀) 하나가 됐다 하면, '키워주었노라'는 사람이 10여명이나 나서, 그저 실소할 뿐이다. 권력 있다 싶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잘 안다는 사람, 친구처럼 막역하다는

듯함과 그 사람이 안도하는 모습을 기뻐하니 반도 될 양이면, 정중하게 사양하고, 그게 지나친 결벽으로 오해되겠다 싶으면 받는다. 조금 주고 많이 기대하는 것이 인 지상정이라 주고받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 연연(戀戀) 하나가 됐다 하면, '키워주었노라'는 사람이 10여명이나 나서, 그저 실소할 뿐이다. 권력 있다 싶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잘 안다는 사람, 친구처럼 막역하다는

그 축복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